

가정에서의 양성평등교육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최근 한국 사회의 여성 고위직 진출이 가시화되고는 있으나 한국 여성 대졸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2.5%로 OECD 국가들 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한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대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1.9%로 조사 대상인 45개국 중 43위라고 합니다.

양성평등 사회는 여성만을 위한 것도, 남성을 불편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남과 여’가 모두 평안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작은 소망입니다. 양성평등 교육은 어느 특정한 성(性)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고 남녀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특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올바른 양성평등 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여 건강한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성평등의 필요성

남성과 여성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한 가정 내에서 부부가 상호 존중하고 인정을 할 때 그 가정이 화목하듯이 사회조직 내에서도 남성과 여성이 상호 존중하고 인정을 할 때 사회적 조화가 잘 이루어져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 사이를 가르고 있는 양성 불평등의 벽을 허무는 작업은 여성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보다 넓은 삶의 장을 열어 보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정 내에서의 양성평등

가정 내에서는 부부 간에 평등하고 아들, 딸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성적 구분에 의한 역할분담이 정형화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돈벌이, 집안 일, 육아, 의사결정을 분담하는 부부이며 남편과 아내의 시간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설거지나 아이를 돌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여성도 남성만큼 사회활동과 여가시간을 가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양성평등을 방해 하는 생각

- 여자는 집안 살림만 하는 것이 좋다.
- 여자의 행복은 전적으로 결혼 잘 하는데 있다.
- 여자에게 적합한 직업과 남자에게 적합한 직업은 따로 있다.
- 남녀가 똑같이 일하는 경우 임금, 승진의 기회가 남자에게 먼저 주어져야 한다.
- 남녀가 함께 일하는 조직에서 책임자는 남자가 되어야 한다.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생각

- 집안 살림은 가족이 함께 분담한다.
- 행복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노력해서 이룰 수 있다.
- 여자나 남자 모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야 한다.
- 남녀가 똑같이 일을 하는 경우 승진, 임금의 기회도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평등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에게 평등하게 서로 독립적으로 협동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정을 이룬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높은 자존감을 갖추고 자라며 행복하고 수평적이며 민주적인 인간관계를 배우게 됩니다.

양성평등의식 향상을 위한 성 중립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 “여자는 얌전해야지!”, “남자가 왜 그래!” 등 성차별적인 언행으로 자녀들의 행동에 제약을 두는 일은 없도록 합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행동을 성역할에 고정시키게 됩니다.
- 진로, 학업 선택, 클럽활동 선택 시 남자와 여자의 영역이 따로 있다는 고정관념은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시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희롱이나 성폭력은 “남성위주의 문화와 사고방식에서 파생된 성차별의식”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남자 - 능동적, 여자 - 수동적, 남녀의 성욕은 다르다는 잘못된 믿음) 잘못된 성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양성평등 교육을 생활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교육 참고 사이트>

- 여성가족부 : www.mogef.go.kr
- 한국양성평등진흥원 : www.kigepe.or.kr/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www.kwdi.re.kr

2017년 5월

호 남 제 일 고 등 학 교 장